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기독교 교육은 생명과 평화의 사람들을 키우는 소중한 일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이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동호회로 모입니다. 만남과 사귄에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에 교육관에서 같이 모여 시작합니다.

한국기독교연구소가 주최하는 예수포럼이 22일(월) 오후 5시 30분부터 청파교회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문대골 목사님(기독교 평화연구소 소장, 예수 살기 상임대표)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수요집회에 오셔도 좋습니다. 아동부에서 매주 수요 저녁집회 시간에 탁아방을 운영합니다.

중구용산지방 남선교회 가을 모임이 25일(목) 오후 6시부터 우리교회(청파)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우 김대근/최종미 씨의 결혼이 27일(토) 오후 2시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축하합니다.

22일은 <차 없는 날>입니다. 대중 교통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조금씩 바꿔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금주의 동호회 소개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지부진하던 일상에서 빠져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니 찾아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주십시오. 순간순간 욕심에 사로잡혀 그 장단에 휘둘리는 우리들입니다. 저 들녘 코스모스가 가을바람 따라 살랑거리듯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 따라 춤추듯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경제위기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가난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실로 눈물겹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을 보살펴주십시오. 사람들은 이 시대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자본주의 시대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장에 뜨거운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 온기로 차가운 세상 따뜻하게 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박병구 배삼순 권호천 임주빈 최현옥 김주경 곽상준

**월정헌금:**

김정애 송임희 이갑재 이정은 김남홍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준우 김춘려 김미순 왕성환 강순배 백묘현

**녹색꿈헌금** : 김지윤 이순정 임창선 장원호 박성희 무명3  
(누계: 2,636,000원)

	장혜숙	장혜숙	박영희	조순덕
	노순옥	정경례	정경례	노순옥
	임정자	임정자	서원금	이은옥
	문영혜	박경선	곽혜자	김진경
	안정숙	박애순	진정숙	최희영
	박홍재	곽권희	오정숙	송의섭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김정애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권미정
	이순정	김금순	오복순	이순정
	이형숙	권미숙	이형숙	황선희
	안홍숙	오현정	정현주	임수연
	백혜숙	정옥영	정옥영	정영선
	송양진	유경순	김명희	송양진
	이영란	박미영	윤정화	이영란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조항미

# 꿈꾸는 당신

내가 채워주지 못한 것을  
당신은 어디서 구해 빈 터를 채우는가.  
내가 덮어주지 못한 곳을  
당신은 어떻게 탄탄히 메워  
떨리는 오한을 이겨내는가.

헤매며 한정없이 찾고 있는 것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 곳에 있기에  
당신은 돌아눕고 돌아눕고 하는가.  
어느 날쯤 불안한 당신 속에 들어가  
눈 깊이 숨은 것을 찾아주고 싶다.

밤새 조용히 신음하는 어깨여,  
시고 매운 세월이 얼마나 길었으면  
약 바르지 못한 온몸의 피멍을  
이불만 덮은 채로 참아내는가.

쉽게 따뜻해지지 않는 새벽 침상,  
아무리 인연의 끈이 질기다 해도  
어차피 서로를 다 채워줄 수는 없는 것  
아는지, 빈 가슴 감춘 채 멀리 떠나며  
수십 년의 밤을 불러 꿈꾸는 당신.(마종기)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알아주는 이 하나 없다 하여 의당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생명과 평화의 길을 선택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아멘. 우리들이 하는 일이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무기를 드는 행동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 작은 평화를 일구어가는 이가 되겠습니다. 주님, 곁에서 늘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성서에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자매의 사귄!	기도 / 조관행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송한별 선생 구성실 장로	인도자 오재환 청년

9월	영접위원	조병무 하현철 조관행 이형숙 최성애 홍선희
	헌금위원	조병무 정영선(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교회의 지도자



누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적당한 인물일까요? 우리 영혼을 보살펴줄 사람에게서 어떤 자질과 성품을 기대해야겠습니까? 교회의 장래 지도자들을 그가 지닌 능력, 이를테면 설교를 잘하거나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적절한 말을 골라서 해주거나 성경 말씀을 전문가답게 해설하는 능력 따위로 평가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이 모두가 중요합니다. 이런 능력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장래 지도자로 뽑히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능력들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에 그 뿌리를 든든히 두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실은 오히려 해악을 깨치기 쉽습니다.

말씀씨가 뛰어나서 자기가 본 환상으로 회중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가 본 환상이 사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사람은 회중에게 무서운 상처를 입히고 많은 사람을 악으로 돌아서게 할 것입니다. 지능이 뛰어난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비틀어 본인의 사악한 욕심을 채우는 데 쓴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믿게 만들 거예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낙심한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악마의 심부름꾼으로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에게 다가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인간이 존재한다는 상상만으로도 모든 믿는 자들 가슴에 두려움이 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에 의하여 교회 지도자로 부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첫째 그의 도덕적 자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 너그러운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한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잘 참아주는가? 남들에게 성실하고 착실한 벗이 되어주는가? 물론, 너그럽고 부드럽고 잘 참아주고 성실하고 착실하지만 그런데도 지도자로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요.

둘째, 그의 영적 자질을 살펴보는 거예요. 때를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

하는가? 조심스럽게 성경을 읽는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에 따르고자 진지하게 노력하는가? 물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참된 교회의 지도자임을 보여주는 한 가지 자질이 있습니다. 그는 과연 겸손한 태도로 자기못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동시에 남들의 능력을 인정해주는가?

교회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자기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영적 은사를 알아보고 전체 회중에 유익한 쪽으로 그 은사들을 활용하게끔 격려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능력과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늘의 은사를 인정하고 그것들이 꽃으로 피어나는 것을 겸손하게 기뻐하는, 바로 그 사람이 교회를 이끌기에 적합한 인물입니다.



목자와 양떼의 관계에 있어서 목자가 양떼인 신자들에게 자기 사랑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그는 자기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해요.

가끔, 신자들에게 대단한 너그러움과 따스함을 베풀면서 거꾸로 그들이 자기에게 베푸는 너그러움과 따스함에는 눈이 먼 사제들을 보게 되는데, 그건 일종의 교만입니다. 마치 사랑의 독점권을 주장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제가 자기에게 보여주는 신자들의 사랑에 감사를 표하면 그로써 그들의 덕을 견고하게 해주면서, 더욱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인의 순례를 계속하라고 격려해주는 셈이지요.

이는 사제와 신자들 사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만 알고 그들의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친구 사이는 양쪽이 사랑을 주고받을 때 가능하지요. 서로 상대방의 사랑을 인정해줘야 하는 거예요.

참 목자면서 친구이신 예수님은 당신 사랑을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몸소 그들에게 신세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친지들과 제자들의 친절에 의존하여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셨지요. 그렇게, 당신이 얻은 바에 감사하심으로써 그들을 당신의 참된 친구요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단순하게 살기>> 중에서